

# 갯벌위 모험 놀이터서 맘껏 즐겨보자

### 13-21일 무안항토갯벌축제 머드벤처 개장 50여 체험행사 첫날 탐방다리 개통 하이лай트



제11회 무안항토갯벌축제가 13일부터 21일까지 무안항토갯벌랜드에서 열린다. 지난 축제 모습.

갯벌과 모험이 어우러진 제11회 무안항토갯벌 축제가 13일부터 21일까지 무안항토갯벌랜드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세상에 없던 놀이터, 갯벌에 그리다'를 주제로, 갯벌과 모험이 결합된 머드벤처(Mudventure)가 개장돼 50여종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온종일 체험'과 '해적' 콘셉트를 바탕으로 마련된 50여개 체험형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는 모험을, 어른들에게는 감성을 선사한다.

이벤트형 프로그램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평일에는 무안항토갯벌랜드 상설 프로그램이 진행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족형 체험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첫날 진행할 무안갯벌 탐방다리 개통식은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국내 최대 목재 보행교인 탐방다리를 걸으며 바다 위를 걷는 듯한 황홀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고 항토 갯벌과 칠면초가 어우러진 붉은 갯벌 풍경이 장관을 이루며 전남 서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기간 낙지광장에서는 대형 에어바운스, 컬러풀 플라스티크 물총놀이, EDM 파티 등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이어진다. 생태과학관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 작가와 함께하는 '갯벌바다예술체험'과 감성 가득한 '갯크닉 존'이 마련돼 특별한 휴식을 제공한다.

또 미끌미끌 장어잡기, 운저리 바다 낚시, 농기계 생태체험 등 갯벌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구독자 143만명을 보유한 생물 전문 유튜브 정브르의 갯벌 생태 강연과 OX퀴즈 등 교육형 이벤트도 열려 재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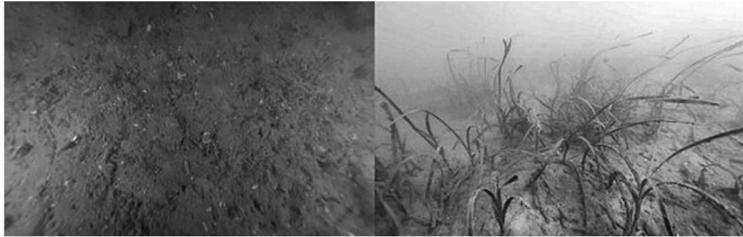
축제장 곳곳에는 해적카페, 해적 포토존, 해적

의상 대여 등 특별한 즐길 거리도 준비돼 있다. 관광객이 직접 해적 탐험대로 참여해 갯벌크루들과 행사장을 돌며 보물을 찾는 '갯벌크루와 함께하는 어린이 해적탐험대'도 하루 3회씩 운영된다.

박문재 무안군 축제추진위원장은 "무안항토갯벌축제는 단기형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생태·체험형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전국 최고의 키즈체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진도군 '남도명인예학당' 운영 전통예술 명인 강좌·서울 특강



해초류 찹피.

진도군이 문화도시사업 중 하나인 '남도명인예학당' 진도 정규과정과 서울 순회 특강을 운영한다.

해당 과정은 진도군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하며, 전통예술 전공자와 전수생 급을 대상으로 진도의 명인들이 직접 참여해 국악, 전통연희, 한국화 등 예술 기량과 정신을 전수한다.

남도명인예학당은 ▲서화(문인화, 한국화) ▲소리(강강술래, 남도잡가, 땃배노래, 옛타령) ▲북놀이 ▲씻김굿(장단, 소리) 등 전통예술의 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명인들이 진행하며, 실기 중심의 심화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순한 기술 전수에 그치지 않고 명인들의 예술 세계와 전통문화의 맥락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전공자들이 전통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승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순회 특강은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됐으며, 현재는 진도 정규과정만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12일부터 운영되며 참가비는 2만원이고,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자세한 내용 등 문의 사항은 진도군문화도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kwangju.co.kr

### 내년 완도서 해조류 심는 '바다 식목일' 행사

####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연계 개최

완도군이 2026년 '제14회 바다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로 선정됐다.

완도군에 따르면 바다 식목일(5월 10일)은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과 바다 사막화 등 문제를 알리고 바다 숲 조성의 필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2012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

군은 지난 2014년 '제2회 바다 식목일' 기념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12년 만에 행사를 또 열게 됐다.

바다 식목일 기념행사는 내년 5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릴 '2026 프레(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다.

바다 식목일은 해양수산부, 전남도, 완도군이 주최하며 한국수산물원공단 주관으로 바다에 해조류를 이식하는 등의 기념행사를 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 환경보호 중요성과 해양자원의 가치를 알리는 두 행사를 연계해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정장바다, 해양 생태 도시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한국수산물원공단 남해본부, 효성그룹 등과 협력해 신지면 해역에 1.59㎢ 규모의 해조류·해초류(찰피) 복합 바다 숲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완도를 장좌리 해역에서 찹피 이식, 해안 정화 활동 등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기자 노트

## 내년 지방선거 벌써 '네거티브' 라니



이상선 서부 취재본부 부국장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문화예술, 세계 속 최대의 섬 국가정원 사업 등 각종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이다. 이는 공식인 군수 공백이 커짐에 따른다.

이러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박우량 전 군수가 지난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뒤 권한대행 체제 속에 주요 사업들이 진척되지 못하고 멈춰 서면서 주민들은 근심 걱정을 내리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 정부의 기초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신안군이 사실상 '선점'해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향후 정부와의 소통을 통한 지원 등은 급선무로 꼽힌다.

특히 신안군은 박우량 전 군수 시절,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조례로 제정, 주민들에게 '햇빛 연금'을 지급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전국의 각 지역 유세현장에서 신안군과 이를 추진한 박우량 군수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햇빛 연금'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 때문인지 박 전 군수는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불과 5개월 만에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죄질이 가볍고, 그동안 신안군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안군 주민들은 박 전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해 신안의 활기를 되찾아 줄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박 전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

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을 두고 '출마 못할 것이다'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소문도 널리 퍼지고 있다.

다. 하지만, 피선거권을 회복한 만큼 박 전 군수의 향후 행보에 달려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박 전 군수의 선거 출마가 제도적 결격 사유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규에는 뇌물·횡령·정치자금법 위반·성범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중대 범죄에 대

해서는 공천 부적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군수의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천 부적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지자체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를 받았다는 점은 그 자체로 문제는 인정해야 한다.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박 전 군수의 사면·복권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박 전 군수를 견제하기 위한 소문들이 나오는 것은 그럴법 하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외면한 '네거티브'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안된다. 군수가 공식적인 상황에 지속적인 발전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벌써 선거 판세 선점만을 위한 '네거티브'로는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지금은 지자체장 공석이라는 엄중한 시기다. 차기 지자체장 직을 놓고 야당과 부정부패의 목소리만 높일 때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가 함께 정제된 신안에 활기를 되찾을 대안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slee@kwangju.co.kr

### "땅끝, 어디 어디 가봤니"...관광지 스탬프 투어

#### 해남군 5곳 완주하면 기념품

해남군이 땅끝관광지를 찾아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땅끝 한바퀴! 어디 어디 가봤니?'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최남단을 대표하는 해남 땅끝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인근 주요 관광지를 두루 둘러보며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스탬프는 ▲세계의 땅끝공원 ▲땅끝탑 ▲땅끝스카이워크 ▲땅끝마을입구 포토존 ▲땅끝모노레일 ▲땅끝조각공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땅끝캠핑장 등 총 8곳에 설치돼 있다.

관광객들은 땅끝공원을 포함해 5곳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투어가 인정되며 완주하면 기념품이 증정된다.

땅끝탑은 땅끝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남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광명소다. 땅끝스카이워크는 유리 바닥 아래로 출렁이는 파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아찔한 스릴을 선사한다.

땅끝 모노레일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전



땅끝마을 완주 기념품.

망대에 오를 수 있다. 땅끝조각공원과 해양자연사 박물관은 예술과 학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의 땅끝공원은 세계의 유명 땅끝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탁 트인 바다가 어우러져 여행객들에게 이국적인 인상을 남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